

## 18, 19세기 중인층의 지식 향유와 산출

— 해외체험을 통한 사대부 epigonen으로부터의 脫皮를 중심으로 —\*

김 영 죽\*\*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2. 지식정보 전달의 架橋와 창작      |
| II. 지식 향유, 산출의 몇 가지 양상 | 을 겸한 경우                 |
| 1. 지식정보 입수를 위한 실무적 역할  | 3. 지식정보를 기반한 창작에 주력한 경우 |
|                        | III.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그간 漢文 文獻과 漢文으로 된 지식정보가 士大夫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전제 하에 중인층 문학의 가치 평가를 그들과의 거리 채기 식으로 재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귀결은 항상 사대부와의 근접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epigonen으로서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본래의 의문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대부의 문학적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문학 외의 그들의 '전문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의 '전문성'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조선 후기 동탕하던 사회의 일각에서 지식인으로서의 명확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조명되었다. 연행 등의 해외 체험을 통해 사대부 지식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4-A00125)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wenxue@hanmail.net

체계 구축의 가교 역할을 하거나, 직접 지식을 습득하고 향유하고자 했던 중인층에 대해 객관적 안목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남긴 기록물 혹은 그들의 활약상이 담겨 있는 기록물 등을 통해 어떻게 지식정보가 유통되고 향유되었는가 역 추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인층은 지식의 주체로서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범위를 ‘해외체험(특히 燕行)’으로 묶어,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선 밖의 새로운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향유하였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야말로 사대부의 epigonen이 아닌 지식 수용 主體로서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 본격적인 텍스트의 수집과 분석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도 역시 지니고 있다.

【주제어】 중인층, 지식정보, 해외체험, 연행

## I. 들어가며

중인층의 성장은 18, 19세기 지식의 대중적 확산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내부에서 창출이 되거나 혹은 외부에서 보급되는 ‘지식’이 그것을 수용하는 주체에 따라 계급의 초월성을 지닌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간 중인층 지식인과 문학작품들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그 중심축을 사대부 문학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 축을 따라 사대부 문학과 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낸다. 이는 사대부 문학과 의 연관 관계를 살펴 작품의 미학적 완성을 가늠했다는 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 영역은 매우 협소해지기 마련이다.

박희병 교수는 『이언진 평전』<sup>1)</sup>의 도입부분에서 중인층에 대한 대략

1) 박희병, 『이언진 평전 -나는 골목길의 부처다』, 돌베개, 2010.

적 특징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중인층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말해주기도 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 ①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인층들의 에너지가 ‘卽物的’이거나 ‘遊興的’인 세대로 흘렀다. 하지만 이는 예술성을 배태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 ② 판소리나 탈춤 등의 민중예술의 후원자적 삶을 살았다. 즉 이들의 시선은 사대부를 향했을 때 보다 서민의 삶과 감각을 향했을 때 예술적 형식을 창출하는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 ③ 사대부의 문예 형식을 모방하고, 관념상 자신을 사대부와 彷彿한다. 이로 인해 현실과 의식의 괴리,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계층이다.

라는 분석이다. 그간의 중인층 문학연구의 대부분은 ③에 대한 의문점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에서도, 漢文 文獻과 漢文으로 된 지식정보가 士大夫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전제 하에 중인층 문학의 가치 평가를 그들과의 거리 재기 식으로 재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귀결은 항상 사대부와와의 근접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epigonen으로서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본래의 의문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대부의 문학적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문학 외의 그들의 ‘전문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의 ‘전문성’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조선 후기 동당하던 사회의 일각에서 지식인으로서의 명확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 조명되었다. 그간 학계에서 사대부 지식인들의 학술적 동향과 그들의 思潮에 관심을 기울이고 천착하였다면, 사대부들의 지식체계를 구축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거나, 직접 지식을 습득하고 향유하고자 했던 중인층에 대해 객관적 안목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남긴 기록물 혹은 그들의 활약상이 담겨 있는 기록물 등을 통해 어떻게 지식정보가 유통되고 향유 되었는가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이러

한 과정 속에서 중인층은 지식의 주체로서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재교 교수는 조선후기의 ‘지식유통’ 혹은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중간계층-여기서는 庶流문인들과 여향문인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였다.-을 지식의 중개자, 발신자로서 접근하는 시각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sup>2)</sup> 이는 중인층 지식인의 연구 방법론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필자가 중인층 지식인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이 磁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sup>3)</sup>

17~19세기 연행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이 중인층의 지식 정보 향유와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안임은 명백하다. 三使의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중인층이 두터워졌고, 이는 역관을 비롯하여各司의 하급 胥吏 등에게까지 그 체험의 기회가 수반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연구가 해외체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 일부 ‘譯官’ 중인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시론의 성격을 지닌다.

## II. 지식 향유, 산출의 몇 가지 양상

우선, 논의에 앞서 중인층 지식인들이 媒介와 享有, 産出의 주체가 된

2) 진재교, 「17~19세기 사행과 지식, 정보의 유통 방식 -複數의 한문학, 하나인 동아시아」, 『한문교육연구』 4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18, 19세기 동아시아와 지식, 정보의 메신저, 譯官」, 『한국한문학연구』 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3) 필자 역시 2011,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post-doc.(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연구과제로서 ‘18, 19세기 중인층의 지식 향유와 산출 -해외체험을 통한 사대부의 epigonen으로부터의 脫皮를 중심으로’라는 과제를 수행하며 이 방면에 지속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1차로 「19세기 中人層 知識人의 海外體驗 一考 -벽로재 김진수의 연행과 「연경잡영」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를 발표한 바 있으며, 본고 역시 그러한 연구의 연계작업 일환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지식’ 혹은 ‘지식정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이들의 ‘해외체험’-특히 使行과 관련하여-이 주요한 기회가 되었을가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는 ‘지식정보’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았으며,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일련의 정보들이 모두 지식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가라는 반문에 대한 해명과도 연결된다.

먼저 지식정보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지식이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라 할 수 있다.<sup>4)</sup> 또한 ‘지식정보’란 그 시대 지식창출에 기여하는 ‘화소’를 지니고, 그것이 지식을 담당하는 계층들에게 지적 충격, 혹은 호기심 등을 제공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이해한다. 여기에는 정보가 담겨있는 서적, 새로운 기능의 器物, 傳聞, 지식인들 사이의 만남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지식정보의 유통, 수입, 그로 인한 재생성 경로는 사행을 포함한 해외체험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시대적 한계를 감안할 때, 해외체험은 당시 지식인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18, 19세기를 ‘연행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은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다. 물론 그들과 縱橫으로 얽혀 있는 庶流문인들도 대거 伴僞으로 참여하였으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中人層의 경우를 보면, 譯官이나 醫官은 그 직무상 기회의 폭이 넓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의 下級 胥吏들은 중인층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는 적었다.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사행에 참여했던 하급 중인들은 거개가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인정받은 이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필자는 본고를 작성하기에 앞서, 2014년 2월 우리한문학회에서 「중인층 지식인의 지식정보 향유와 산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지식과, 지식정보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해서는 당시 토론을 맡아주신 이성혜 선생님의 심도 있는 지적과 조언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토론을 맡아주신 이성혜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요컨대, 해외체험의 기회를 부여받은 중인층 지식인들은 낯설고 제한된 공간에서 그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문학적 역량과 실무의 능숙함만으로도 지식정보와 관련한 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해외체험 즉, 使行-연행과 통신사행-에서 그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燕行을 위주로, 여기에 참여 했던 중인층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행을 통해 지식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한 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연행 체험의 주체가 어떠한 사회적 처지에 놓여있는가, 그들의 人的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등의 요소에 따라 기인한다.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자신이 남긴 기록물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 경험을 토대로 완성한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며, 혹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록을 남긴 역관 출신 중인층에 국한된 연구가 그 이외의 중인층 지식인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작업은 흩어져 있는 편린을 모으는 것이다.

필자는 承文院 胥吏 출신 추재 조수삼의 연행<sup>5)</sup>에 대해 주목하면서 18, 19세기 중인층 지식인의 해외체험 有無와 그 기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18, 19세기의 해외체험 중인층 지식인과 근거자료를 일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다음 표는 이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다.<sup>6)</sup>

5) 拙稿, 「추재 조수삼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 여전히 보완의 여지가 있는 작업임을 밝힌다. 이 표는 拙稿, 「19세기 中人層 知識人의 海外體驗 一考-벽로재 김진수의 연행과 「연경잡영」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회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에서 조사한 사항에서 수정·증보된 것이다. 단, 자신의 문집 혹은 타인의 문집에서 연행의 근거자료가 발견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실록』을 위시한 官廳자료에만 언급된 譯官은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

## &lt;18~19세기 해외체험 중인층 목록 및 근거자료&gt;

時期	題目	소재 (지역)	근거자료	作者	계층	備考
18세기 ~ 19세기	「遼野」, 「狼子山滯雪 入夜開霽 月色皎然」	燕京	『風謠續選』 『일성록』 정조 10년(1786) 11월 23일(계사)	崔挺祥 (1734?)	譯官	-李尙迪의 외조부 -1786년 연행
	「燕館餘夕次高蜀州韻 外 다수」	燕京	『儉巖集』 소재 연행시	范慶文 (1738 -1800)	中人 <sup>7)</sup>	-연행체험 추정
	「北征錄」	燕京	『好古齋集』 <sup>8)</sup>	金洛瑞 (1757 -1825)	奎章閣 胥吏	-1784년 연행
	「觀音閣留別朱侍讀廉 石暨其第主事滄淵·周 內翰希甫·張翰林船山· 羅舉人兩峰諸人」	燕京	『風謠三選』	盧允迪 (1771 -1821)	奎章閣 胥吏	-1799이전 <sup>9)</sup> 연행체험 추정
		燕京	홍석모, 『陶厓詩文選』 『書隱佩韋遺事』	曹得廉 (曹俊氏)	戶曹 胥吏	-耳溪 洪良 浩의 書記 -1794년 연행체험 추정
	「薊門烟樹」, 「渡鴨綠江三首」, 「榛子店」, 「姜女廟」	燕京	『風謠三選』 林得明『松月漫錄』 소재 「贈羅聚之燕行」	羅文奎	中人	
	「燕京路中口占」	燕京	『風謠續選』	朴世文	主簿	
		燕京	朴允默 『存齋集』 「送倉山玄令赴燕」	玄在德 (1771-?)	醫官	

7) 정확한 직책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편의상 中人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김영진 교수의 「여항시인 김낙서의 『호고재집』」(『고전과 해석』 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에서는 ““여항문학총서 보유편’의 편찬 및 간행을 준비 중에 있다.”라 언급하였으므로, 이들 자료가 공개 된다면 인물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논문에서는 특히 周命新(醫官), 金相淳(譯官) 자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8) 『호고재집』과 김낙서에 관해서는 김영진, 위의 논문. 참조.

9) 노윤적이 연경에서 만난 兩峰 羅聘의 생몰년은 1733-1799이다.

時期	題目	소재 (지역)	근거자료	作者	계층	備考	
18세기 ~ 19세기	「海甸竹枝詞」	燕京					
	「瀋陽雜詠」	瀋陽					
	「外夷竹枝詞」						
	「聯林小譜」	해외 (中國, 베트남, 日本 외) 散文, 詩話 형식 혼재		『經畹總集』(동국대소장), 『珍珠船樸存』(연세대 소장), 『聯林小譜』(수경실소장)	趙秀三 (1762 -1849)	承文院 胥吏	-6차례의 연행체험
	燕行詩, 「將赴燕京示兒輩」 의 다수	燕京	「夢觀齋詩稿」	李廷柱 (1778-?)	譯官	-연행체험 추정 -李尙迪의 從叔	
	燕行詩, 「遼野」 외	燕京	「天籟詩稿」(규장각필사본)	李廷稷 (1781-)	譯官	-李尙迪의 父親 -연행체험 추정	
	燕行詩, 「遼野」 외 다수	燕京	『歡齋詩抄』	卞鐘運 (1790 -1866)	譯官	-연행체험	
	燕行詩, 「己卯將作燕 行,賦得一律,留別家人, 兼示社中諸益」 외	燕京	『大山詩鈔』(규장각)	오장렬 (1793 -1858)	醫官	-연행체험	
	「燕京雜詠」	燕京	『碧蘆集』 「蓮坡詩抄」	金進洙 (1797 -1865)	軍銜 혹은 承文院 관련 직책 추정	-小注+竹枝 詞+黃鐘顯 의 評 형식 -연행체험 있음	
	「燕都雜詠」	燕京					
	「諸蕃雜詠」	해외					
	「東八站道中」, 「薊門烟樹記」 외	燕京	『枕雨堂集』	張之宛 (1806-?)	律官	-연행체험 추정	
	「日本雜事」 <sup>10)</sup>	日本	『閩巷文學叢書』內 「思誦堂集」	李尙迪 (1804 -1865)	譯官	-12차례 燕行 체험 있음	
	「和國竹枝詞」	日本	『閩巷文學叢書』內 『紅藥樓詩集』	金爽準 (1831 -1915)	譯官	-燕行/日本 체험 있음 -七言絶句의 전통형식이 아닌 五言律 詩의 형식	

이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심도 있는 개별적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치정보, 문화 정보, 그리고 인적 정보 등 그들이 조선 후기의 지식의 향유, 산출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흔적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인층 지식인들이 정보를 향유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주목했다. 연행과 관련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지식 정보를 직접 입수하는 등의 실질적 역할을 한 경우, 지식 정보 입수와 전달에 관여하고 이를 활용한 기록을 남긴 경우, 정보를 얻어 기록에 치중한 경우가 그것이다.

### 1. 지식정보 입수를 위한 실무적 역할

연행에 있어 ‘정보 입수’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은 아마도 譯官일 것이다. 이들의 직임이 그저 ‘말’을 통하게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이들은 외교적 쟁점의 하중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그들의 행적은 『실록』의 별단이나 그 지식 정보를 2차적으로 수용한 사대부 문인들의 연행기록에서 종종 발견 된다. 물론 제 삼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므로, 역관 당사자의 정황이나 심리상태가 오차 없이 전달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심지어, 기록자의 사회적 지위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들의 행동이 곡해되기 십상이다. 정보를 수집해주고, 기민한 사안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가도, 정보를 전달해준 이들 외에는 그 정확성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에 끊임없이 의심받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 명징한 예로 譯官 金是瑜를 들 수 있을 것이

10) 실제로 李尙迪의 『恩誦堂集』에는 일본을 소재로 한 죽지사 20수에 따로 제목이 붙어있지 않다. 다만, 소당 김석준의 『紅藥樓詩集』에 실려 있는 침계 윤정현의 「和國竹枝詞 跋」에 의하면 “李君藕船曾賦日本雜事七絕二十首”라는 언급이 있다. 이에 따른다.

다. 김시유 자신이 별도로 남긴 연행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의 활약상은 18세기 초반 주요 연행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재이다.<sup>11)</sup>

金是瑜는 1677년 생으로 23세(1699)에 역과에 합격했으며, 부친은 四驛院正을 지낸 金應淵이다. 1724년 告訃使兼奏請使를 수행하면서 1725년 영조의 세자 책봉문제와 1727년 史冊辨誣의 일까지 삼사를 도와 주요 사안을 능숙하게 해결한다.

…… 金常明<sup>12)</sup>이란 자는 본래 우리나라 사람의 자손이니 그 증조 모감이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지 못하므로 청인이 되었다. 상명이 바야흐로 현달하여 벼슬하여 옹정에게 은전을 입었기 때문에 작년 사신이 돌아왔을 때 사책 변무하는 일로써 상명에게 간청하였다. 상명이 居間하여서 주선함을 허락했다. 금일, 상명이 통관으로 하여금 역관 金時裕(金是瑜)<sup>13)</sup>를 보길 청하였는데, 김시유는 상명에게 간다고 아뢰었다. 부사께서 시유에게 일러 말하길 “이번 길에 그대를 데려온 것은 오로지 사책 一款을 위함이다. 내년 12월에 가히 開刊을 마치리라 했던 말이 이미 상명의 작년 편지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지금 그 기한이 지났다. 이번 행차에 만일 간본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대가 작년에 주선하겠다고 운운했던 말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길에 따로 계청하여 데려온 뜻이 장차 허사로 돌아갈 것이니 그대가 어찌 罪責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상명을 보고 이 말을 이르되 말을 잘하여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라.” ……<sup>14)</sup>

11) 1727년 姜浩溥의 『桑蓬錄』, 1732년 李宜顯의 『壬子燕行雜識』, 韓德厚의 『承旨公燕行日記』 등에 빈번히 등장한다.

12) 金常明 혹은 金尙明으로 표기된다. 『실록』에도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징』(혜안, 2007.)에서는 金尙明으로 비정하고 있다. 연암의 『열하일기』와 서호수의 『연행기』 등에는 金常明으로 표기하고 있다.

13) 姜浩溥의 『桑蓬錄』에는 金時裕라 되어 있으나, 이는 金是瑜의 誤字이다.

14) 姜浩溥, 『桑蓬錄』 卷8, <1728년 1월 초4일>, “…… 有金常明者, 本我國人子孫也. 其曾祖某甲被虜於丙子難, 而不得還, 因爲清人. 常明方顯達仕路, 被眷遇於雍正帝. 故去年使臣回時, 以史冊辨誣事, 懇請於常明. 常明許其居間周旋矣. 今日常明, 令通官請見譯官金時裕, 時裕以將往于常明之意告之. 副使令公

1727년 10월 5일에 정사였던 洛昌君 李樞가 榻前에 계를 올린바 있는데, 이때 역관 김시유를 별도로 데려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英祖는 다른 역관은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김시유만은 반드시 동행하라 명했다. 청 조정과 史冊 開刊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이는 당시 김상명이었다. 또한 김상명에게 淸 조정에 사책 개간을 청하게끔 居間하는 역할을 맡길 이로는 李樞와 金是瑜 두 사람이 거론되었는데, 당시 李樞<sup>15)</sup>는 入燕했다가 回程에 있을 때여서 김시유가 員外로 차출된 것이다. 김시유 역시 막중한 공무를 맡았던 까닭에 김상명을 만나 청했으나, 황제와 총재관의 修正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책 개간이 미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된다.

김상명은 그의 어머니가 淸 世祖의 유모였던 까닭에 청의 황족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청 조정의 내부 사정에 대해 익숙한 이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의 사신들은 이 같은 사실을 편의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그 역시 조선 사신들에게 그만큼 예우를 받아왔다. 김시유와 김상명에 관한 기록은 『실록』 및 『승정원일기』, 동시대 『연행록』 곳곳에 보인다. 1727년 『明史』에 실린 인조반정에 관한 기사를 수정하고 바로잡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청의 내부사정 및 정세라는 고급정보를 1차적으로 습득하는 사람들은

---

謂時裕曰, 今行率君而來者, 專爲史策一款也. 明年臘月, 可以畢刊之說. 旣明言於常明之去年書, 而今旣過其限矣. 今行若未得其刊本而歸, 則君所云去年周旋云云之說, 不免爲僞飾之言. 而別啓請以來之意, 又將歸虛, 君豈逃其罪責哉. 君往見常明, 諭以此意, 善爲說辭. 毋有虛還之弊也 ……”

- 15) 李奎象, 『并世才彥錄』, 『譯官錄』에 李樞(1675-?)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30년간 淸漢역관의 우두머리로 있었으며, 승록대부의 품계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숙종은 그를 일러 “나는 이추의 청렴하고 근실함을 잘 아노라.”라 하였으며 사대부들은 그를 관명으로 부르고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明史』에 仁祖反正에 관한 기사 수정을 요구하며 肅正제 때 여러 번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그때마다 李樞를 함께 동행시켰고, 결국 건륭 무오년(1738)에 改修한 『명사』를 인쇄하고 보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李樞의 공이 컸다고 한다.

역관들이다. 혹은 연행자들이 새로운 文物制度로 접근하려는 시도 역시 대부분 이들을 거치게 되어있다. 또한 18세기 중·후반까지 주요 연행록에 거론되는 역관으로 洪命福이 있다. 그는 1733년 생으로 21세(1753)에 역과에 합격하였으며, 부친은 사역원정을 지낸 洪大成, 조부는 洪舜濟로서 譯科名文家이다. 洪大容, 朴趾源, 李德懋, 徐浩修 등의 巨學들과 함께 연행하였으며, 이들이 남긴 연행록에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들보다 앞서 그의 나이 28세(1760)에 정사 洪啓禧, 부사 趙榮進, 서장관 李徽中으로 구성된 進賀兼謝恩使行的 역관으로 임하게 된다. 수역은 李廷燿<sup>16)</sup>였으며, 홍명복은 아직 그만한 경력을 쌓지는 못한 상태였다. 당시 서장관의 자제군관으로 수행했던 李義鳳은 『北轅錄』을 통해 홍명복에 대해 기록했다.

a. …… 실내로 들어서니 수놓은 장막이 매우 사치스럽고 화려했으며 담장을 칠한 것은 더욱 선명했다. 늙은 종이 평상에 앉았는데 한쪽 눈이 애꾸였다. 작은 중 數三人이 장막을 걷고 나와 벽에 글씨를 써주길 부탁했다. 역관 홍명복이 一筆揮之하여 주고는 자못 의기양양하여 자득한 듯 했다.……<sup>17)</sup>

b. …… 돌아오는 길에 聶水店에 도착했다. 白이란 사람이 山西의 공생(貢生)이라 자칭하였다. 집이 가난해서 행상을 하는데, 이곳에 가게를 차렸다면서 우리나라 백지 10장을 가지고 와 내 글씨 연기를 원하기로, 나는 잘 못쓴다고 사양하고 역관 홍명복(洪命福)에게 보내어 그 글씨를 받아가게 하였다. 석양에 거리를 거닐다가 우연히 한 점포에 들렀더니, 바로 白生이 있는 곳이었다. 백생이 반겨 맞아들어 앉으며, 홍 통역(洪譯)의 글씨를 내어놓고는 내가 써 주도록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했는데, 그 사람됨을 보니 매우 순박하고 암전하였다.……<sup>18)</sup>

- 16) 李義鳳의 『北轅錄』에는 “李廷燿”로 되어 있으나, “李挺燿”의 誤記인 듯하다. 李挺燿를 위시한 完山 李氏 등은 역관 가운데서도 무역과 실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양수, 「조선후기 역관의 중개무역과 왜관유지비」(『大湖 李隆助 교수 정년기념논총』, 2007.) 참조.
- 17) 李義鳳, 『北轅錄』 卷3, <12월 26일>, “…… 入其室, 繡帷極侈麗, 粉壁益鮮明, 而老尼坐於榻上, 而目已瞎矣. 小尼數三, 捲帷而出, 請附壁書, 洪譯命福揮筆飛書而與之. 頗揚揚如有得. ……”
- 18) 洪大容, 『燕記』, <3월 27일>, “歸到聶水店, 有白姓人, 自稱山西貢生. 家貧行

a와 b는 역관 홍명복이 청조 문사들에게 글씨를 써주는 일화들이다. 이의봉과 동행한 후 5년 뒤 홍명복은 홍대용과 함께 연행에 임한다. 홍대용이 자신의 글씨에 겸손을 표하면서 그 기회를 역관 홍명복에게 넘겨준다. 연행 기록을 살펴보다 보면 종종 三使를 대신하여 자제군관이 나 역관 등이 代筆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필이라는 것은 위탁받은 이의 상당한 지식을 요한다. 또 동시에 그 지식에 대한 위탁하는 이의 신뢰를 요하기도 한다. 위의 예문으로 볼 때 이들은 홍명복의 知的 수준이 때로는 자신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는 것이다.

홍명복은 여러 번의 연행을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당시 홍대용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서양 문사와의 대화를 성사시켜 주었고, 異域문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전적인 기여를 했다.<sup>19)</sup> 그의 역할은 이역의 문물, 대외 정세와 관련하여 이처럼 한 개인의 관심사만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賣咨官 洪命福이 手本으로 저곳의 사정을 말하였다. 거기에 아뢰기를, “황제의 팔순(八旬) 稱賀에 관해 禮部에 물었더니, ‘금년 3월에 명을 내려 즉위 55년이 되는 해에 거행하라 하셨고, 4월에 또 명을 내려 55년이 되는 해에 山東에 거둥하여 泰山에 禮祭하고 闕里의 孔子 사당에 展謁하겠다 하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緬甸國은 雲南 밖 먼 남쪽에 있어 길이 매우 멀습니다. 금년에 면전국의 추장이 두목 세 사람을 보내어 表文과 貢物을 바치기 위해 운남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이 바칠 공물은 황금탑(黃金塔)과 길들인 코끼리 8마리라고 합니다. 安南國은 임금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는 변란이 생겨 그 왕비와 세자가 바다를 건너 廣西省으로 와서 구원을 요청하자, 광서 총독이 급히 조정에 아뢰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광서 총독으로 하여금 그 변란의 연유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

商, 開舖於此, 以我國白紙十張, 願得余筆法. 余辭以拙, 送于洪譯命福使受去. 向夕, 出步街上, 偶入一舖, 卽白生所居, 白生欣然延坐, 出洪譯書, 謝余指使, 觀其人極淳良.”

19) 진재교, 「18,19세기 동아시아와 지식, 정보의 메신저, 譯官」(『한국한문학연구』 47집, 한국한문학회, 2011.)에서도 홍명복의 활약상을 자세히 언급했다.

는데, 이는 장차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臺灣의 사변은 금년 3월에 역적 괴수 林爽文 등 8명을 북경으로 잡아다가 이미 처형하였고,出征했던 福康安·海蘭泰 등은 公爵으로 進封되었다고 합니다.”<sup>20)</sup>

이는 홍명복이 올린 手本내용이다. 위의 내용은 1788년 정사 이재협의 『聞見別單』에도 유사하게 실려 있다. 1788년에는 한 차례의 사행만이 이루어졌으므로, 홍명복의 보고서는 이재협의 『문견별단』 내용의 바탕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내용에 緬甸國이나 安南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安南의 급변하는 정세, 대만의 사변 등 당시 지식인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안남국 阮文惠(후에 阮光平으로 개명)의 西山運動을 통한 왕권 장악과 이에 대한 청 조정의 대응은 1789년 이후 본격적인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추재 조수삼의 『연상소해』나 서호수의 『연행기』에서 역시 안남의 가장 동당했던 시기이자 확고부동했던 청조의 절대 권력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이 사건을 주요사항으로 다루었다. 이들은 洪命福 등의 역관들이 전달해준 1차 자료에 기반 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가공·전달하는 것이다. 역관이 서적 유통과 보급에 관련하여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잘 밝혀진 바 있다.<sup>21)</sup> 이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정보’라 할 수 있다. 정치 정보와 관련하여 역관들의 역할과 파급력

20) 『正祖實錄』 卷26, <12年(1788 戊申/乾隆 53年) 8月 12日(辛丑) 2번째 기사>, “賚咨官洪命福手本, 言彼地事情. “皇帝八旬稱賀, 問於禮部, 則以爲: ‘今年三月下旨, 以五十五年舉行, 四月又下旨, 五十五年, 將幸山東, 瞻禮岱宗, 展謁闕里’ 云. 緬甸國在雲南外極南, 途道甚遠. 今年緬甸酋長, 遣頭目三人, 奉表入貢, 到雲南省, 所貢之物則黃金塔一座, 馴象八隻云. 安南國, 有篡弑之變, 其王妃及世子, 浮海到廣西省請援, 該總督馳奏, 皇帝大怒, 令廣西總督, 詳查其變亂之由, 將興師問罪云. 臺灣事, 則今年三月, 逆魁林爽文等八人, 檻致北京, 已爲正法, 出征之福康安海蘭泰等, 進封公爵云.””

21) 진재교, 「18,19세기 동아시아와 지식, 정보의 메신저, 譯官」(『한국한문학연구』 47집, 한국한문학회, 2011.)에서는 ‘서적유통과 보급, 창작’에 중심축을 놓고 논지를 전개했다.

이라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한편 역관 신분이 아니면서 연행이라는 기회를 통해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리라 추정되는 인물들이 있다. 다음은 曹得濂(曹俊民)이라는 戶曹 胥吏에 관한 기록이다.

書隱 曹得濂의 字는 蓮卿이며, 佩韋子 鄭尙玄의 字는 廉白으로 여향인들이다. 이들 모두 문필을 갖추어 시로써 이름이 났다. 우리 조부 이계 홍양호 선생께서 이들을書記직으로서 좌우에 두셨으니, 著述과 鈔錄의 대다수가 이 두 사람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서은은 地部(역자 주: 戶曹)의 序班이라 하였는데, 이 계공을 공경히 모시는데 부지런하였다. 여향인들 사이에서 칭해지길, 그 詩가 平淡하고 和平하며 初唐의 風韻이 있고 학문은 經史에 근본하여 熟讀하고 究解 하였으니, 늙어서까지도 게으름이 없었다한다. 또한 풍수지리에도 능통하였으나 뽑내는 법이 없었다.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일찍이 나와 함께 家大人을 따라 入燕하여 큰 대륙을 마음껏 유람한 적이 있다.<sup>22)</sup>

위의 예문은 陶厓 洪錫謨의 『陶厓詩文選』(革)에 실린 「書隱佩韋遺事」에서 발췌한 것이다. 조득렴은 字는 汝秀, 호는 書隱이다. 추재 조수삼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林得明의 『松月漫錄』 등에는 그가 송석원시사에서 활발하게 詩文 창작을 했던 경력이 잘 드러나 있다. 별도의 문집을 남기지 않았으나 그를 유명한 책 거간꾼 曹神仙과 동일인물로 추정하는 기존연구<sup>23)</sup>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홍석모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계 홍양호의 書記로 일했으며, 저술과 초록의 대다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가 만일 京華閥閥부터 중인층 지식인들의 지식정보 유

22) 洪錫謨, 『陶厓詩文選』(革), 「書隱佩韋遺事」, “…… 書隱曹得濂字蓮卿, 佩韋子 鄭尙玄字廉伯, 閩巷人也. 俱有文筆以詩名焉. 我王考耳溪先生, 以書記置諸左右, 著述鈔錄, 多出於二人之手. 書隱稱地部序班, 恪勤奉公以廉勤, 稱於輩類, 其詩沖澹和平, 有初唐風韻, 學本經史, 熟讀究解, 至老靡怠, 又通堪輿之述, 而未嘗沽術, 故人無知者. 嘗與余隨家大人入燕, 縱覽大地……”

23) 김영진,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p.618.

통을 담당하던 책 거간꾼이었다 상정한다면 홍석모가 제시한 그의 이력과 燕行 경험은 쉽게 간과할 만한 사항이 아닐 것이다.

이상 살펴본 김시유, 홍명복을 위시한 주요 역관들이나 조득렴과 같은 서리들은 연행을 매개로한 창작물을 남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타의 연행록에 기록된 그들의 관심사, 사안에 대한 접근 경로 등의 행적은 지식 정보 획득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의 傳言은 동행한 三使 혹은 수행원들의 代理見聞을 충족시킨다. 또한 이 대리견문은 다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2. 지식정보 전달의 架橋와 창작을 겸한 경우

역관처럼 행정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조의 학예적 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문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인들 역시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정보를 또 다른 관계망을 형성하게 만드는 架橋로서 활용하며, 스스로도 이와 관련한 창작 및 기록에 힘쓴다. 즉 어찌 보면 사적인 實務를 담당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주로 경화별열의 문한들과 청조 문사들의 학예적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하고 이들이 또 다른 지식 정보를 생성하게끔 도와준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 여부에 따라 가교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식체계를 구축하여 창작활동을 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추재 조수삼(1762-1849)을 꼽을 수 있다.

추재 조수삼의 燕行 경력은 화려하다. 역관 신분이 아니면서 총 6차례의 연행<sup>24)</sup>에 임했으며, 수많은 청조 문사들과 직접 교류하거나 사대부 문인들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媒介를 자처했다. 다음은 그 일례이다.

한림 홍오는 호가 동생(桐生)인데<sup>25)</sup> 지원(芝園)[趙秀三]과 본래 아는 사이이다.

24) 추재의 燕行에 관해서는 拙稿, 「추재 조수삼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그래서 그와 한차례 만나기로 약속했기에, 아침에 李于野<sup>26)</sup>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집은 유리창 二子衙衙에 있고, 집을 지키는 사람 몇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맞이하여 의자에 앉힌 다음 말하기를, “동생 선생께서는 어제 조정의 명령으로 인해 庶常館에 갔습니다. 撰修하는 일은 시일이 걸려야 할 것이고, 그 일이 끝나야 비로소 집을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다. 그래서 그를 친히 만나볼 수는 없겠기에 드디어 종이를 찾아서, “일찍이 뵈옵지 못하였더니, 저희 벗 趙芝園을 인해서 훌륭한 이름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만나 뵈기를 절실히 약속하고 선생의 관사에 찾아왔더니, 공교롭게도 출타하시어,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바입니다. 다시 저희 벗 조지원을 통해서 만약 선생께서 한가히 계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의당 다시 오겠습니다. 이것을 책상에 머물러 두어 선생님께서 보시게 하옵니다. 東華 某는 동생 선생 책상 아래에 절하고 올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집 지키는 사람에게 주고 돌아왔다.<sup>27)</sup>

東華 李海應(1775-1825)은 『薊山紀程』의 작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1803년 10월 三節年貢使에서 수행원으로 참여 하였는데, 이때 조수삼과 동행했다. 조수삼은 이때가 3번째 연행이었다. 조수삼과 이해응의 친분은 연행 이전에 시작되었는데, 石厓 趙萬永과 雲石 趙寅永 등 풍양조씨 가문과의 인연에서 비롯한다. 당시 조수삼은 풍양 조씨 가문의 庇護를 받고 있던 중인이었으며 이해응은 조인영과 詩友였다. 위의 예문에서 이해응이 조수삼을 통해 청조 문사 洪梧를 소개받는 정황이 묘사되어 있다. 홍오는 조수삼의 첫 연행에서 만났던 인물이다.<sup>28)</sup> 당시 한림원의

25) 『薊山紀程』에는 洪梧의 호를 ‘梧生’이라 표기하였는데, 이는 ‘桐生’의 誤記이다. 『經畹叢集』에 실린 추재의 1차 연행시 가운데, 「洪序常桐生宅留別孟晉齋諸人」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26) 于野道人 李光稷을 말한다.

27) 李海應, 『薊山紀程』 卷3, “洪翰林梧, 號桐生, 與芝園有雅. 約與一會, 故朝與李于野, 訪至其家, 家在琉璃廠二子衙衙, 有管家者數人, 延致椅上, 語曰, 桐生先生, 昨因朝令赴館, 撰修將費日月之工, 工訖始可以出家, 故未得臨門親肅. 遂索紙留書曰, 曾未獲晤, 因敝友趙芝園, 夙仰鴻名, 切期一會, 委進館下, 巧值駕言, 悵惘而歸矣. 更憑趙友, 若聞燕居之日, 規當再進, 聊此留案呈覽, 東華某拜上桐生先生下, 授與管家而還.”

庶常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歸路에 임해, 홍오의 서실에서 여러 청조 문사들과 아쉬운 이별을 한 후<sup>29)</sup>, 세 번째 연행이 있던 1803년 燕京에서 재회한다.

『계산기정』에는 庶常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서상관이란 조선 사신들의 숙소인 玉河館 옆에 있으며, 한림의 庶吉士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였다. 아울러, 조선 사람으로서 연경을 들어간 자라면 누구나 대부분 서길사와 從遊하여 시문을 담론하느라 매번 서상관을 들락거렸다고 한다. 이해응은 당시 한림원에서 撰修의 직을 맡고 있던 홍오를 만나지 못하자 유리창 이자호통에 있는 그의 집까지 찾아가 그를 만나고자 한 것인데 이 때 그와의 약속을 잡아준 이가 바로 조수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이 여의치 않자 동화는 홍오와의 약속을 조수삼을 통해 다시 잡는다. 이외에 조수삼이 만났던 石菴 劉墉이나 船山 張問陶와 같은 문인학자들과의 만남도 시도했지만 선뜻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吳崇梁의 경우는 다행히 만남이 주선 되었다. 사대부들 사이에서 추재가 청조 문인들과의 架橋 역할을 하였음이 단적으로 제시된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청조 금석학의 대가였던 劉喜海와 조인영을 대신하여<sup>30)</sup> 편지 왕래를 한 예이다.

…… 작년 雲石公[趙寅永]께서는 영남 관찰사를 제수 받고 외람되게도 저를 기실참군으로 삼으셨습니다. 금년 봄에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 선생[劉燕庭]께서는 윤석공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번을 지키는 신하로서 나라 밖과는 서신을 통할 수 없는 것이 국법이옵니다. 윤석공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국가의 법을 감히 어길 수는 없으며 벗의 편지에 답하지 않을 수도 없다. 어찌

28) 趙秀三, 『經畹叢集』, 「洪序常桐生宅留別孟晉齋諸人」.

29) 趙秀三, 『經畹叢集』, 「洪序常桐生宅留別孟晉齋諸人」에서 “봄바람에 만 리 고향으로 돌아간 후, 꿈에서 때때로 옥하관을 맴돌겠지[東風萬里還家後, 魂夢時時繞玉河]”라 하여 이별의 정을 나눈 바 있다.

30) 유희해와 조인영은 1816년 조인영이 입연하였을 때 인연을 맺었으며 서신 왕래가 잦았다.

두 가지를 절충하지 않겠는가?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게. 나를 위해 흠모의 뜻을 보내주지 않겠는가?” 이는 또한 운석공께서 최근에 제가 선생을 사모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sup>31)</sup>

이 편지는 조수삼이 1826년에 작성한 것으로, 마지막 연행이 있었던 1829년 이전의 일이다. 1829년 조수삼은 처음으로 유희해를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이 편지는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쓴 셈이다. 그는 이미 석암 유희공과 만난바 있었으므로 유희해의 명망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던 터이다. 조인영과 유희해 사이에 편지를 작성,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1829년 유희해와의 만남이 좀 더 자연스러웠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조수삼은 유희해의 『海東金石苑』에 註를 남기기도 했다.<sup>32)</sup> 유희해가 『해동금석원』에 조수삼을 기록한 사실만으로도 그가 금석문에 대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조수삼은 연행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당시 청조의 학예적 분위기를

31) 趙秀三, 『秋齋詩稿』, 文, 「寄劉燕庭喜海書」, “…… 昨年雲石公拜嶺南觀察使, 謬辟秀三爲記室參軍矣. 今春使人還, 先生有書於雲石公, 而按藩之不得通書於域外, 邦禮也. 雲石公謂秀三曰, 邦家之禮, 罔敢有違, 故舊之書, 不可無答. 無寧折衷乎二者, 則子其爲我替伸鳴謝之儀, 爲己而附陳景仰之懷可乎. 是雲石公又知近日秀三之仰慕先生……”

32) 劉喜海, 『海東金石苑』(아세아문화사), “…… 迄今猶文物之邦, 爰有雲石趙君(註: 趙雲石名寅永, 字義卿, 朝鮮人, 嘉慶丙子入都, 知余有金石癖, 於書林中晤之, 出行篋所携東碑數十種, 悉以見餉, 嗣後每遇鴻便, 必有金石之寄), 竹林繼美(註: 雲石小阮, 名秉龜, 字景寶, 亦有金石之好, 道光庚寅春日, 充使來都, 卽以金石爲贄, 修舊好焉), 山泉金子(註: 金山泉, 名命喜, 道光癸未來都, 與余同好多金石之贈), 棠棣齊名(註: 山泉長兄秋史, 名正喜者, 曾於庚午來都, 謁見翁覃溪阮雲臺諸先生, 其經術文名爲朝鮮一時之冠, 曾手拓古碑寄余), 學富縹緗, 誼敦縹緗, 雅慕中華之教, 欲觀上國之光, 鴨水春寒, 鳳城曉霧, 郵程覽勝, 歷盡萬二千峰(註: 趙秀三爲余曰, 一路來多山, 歷過一萬二千餘峰)……”  
아세아문화사에 수록된 『海東金石園』은 南林劉氏家業堂刊本이다. 상해서점에서 간행한 『총서집성속편』에 수록된 유희해의 『해동금석원』에는 유독 趙秀三에 대한 自註 부분만 누락되어 있다.

적극 체험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일화를 작품을 통해 기록해두었다. 그의 기록은 서화와 관련한 의외의 에피소드를 낳기도 한다. 音田 程振甲과 소동파의 「天際烏雲帖」 탁본과 관련한 일화가 바로 그것이다.

정진갑<sup>33)</sup>은 1789년 조수삼의 첫 연행을 계기로 교류한 인물이다. 그가 조수삼에게 「천제오운첩」 新刻本을 선물하게 된 것이다. 조수삼은 이에 「程音田所藏烏雲帖」에 대한 발을 썼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의 것은 동파 노인의 진적과 원, 명 제공들의 제사와 발문인데, 참으로 두 가지 절묘한 것이다. 경술년(1790)에 정월 초하룻날 북경에 들어갔을 때 음전이 소장한 신각본을 내게 주었는데 내가 아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乙卯(1795) 長至日에 秀三이 識하다.<sup>34)</sup>

그러나 기실 정황은 이러했다. 당시 蘇東坡를 흠모하였던 것으로 유명한 옹방강은 「천제오운첩」의 유일한 眞蹟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외에 涿州의 馮氏快雪堂, 曲阜의 孔氏, 徽州의 程氏가 진적의 탁본을 지녔다고 전해졌다. 여기서 휘주의 정씨가 바로 정음전이다. 巨金을 주고 동파의 眞蹟을 구입했던 옹방강은 『復初齋文集』 卷29에 실린 「跋天際烏雲帖」에서 이에 대하여 상세히 고증하는 가운데 풍씨와 공씨, 정씨가 지니고 있는 것은 진적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혀 놓았다. 옹방강이 이를 탁본하여 조선에 전해지고, 현종이 소장하게 된다. 자하 신위가 이에 대한 발문을 쓰고 이를 刻한 시기는 철종 13년인 1862년이였다. 하지만 진적이 아니었던 정씨 탁본, 즉 정음전 소장의 오운첩은 조수삼에 의해 옹방강의 진적보다 훨씬 앞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는 조수삼과 정

33) 程振甲: 字는 也園 號는 音田. 安徽省 歙縣人. 乾隆 49년 內閣中書로 선발, 乾隆 51년 吏部員外郎에 이름.

34) 「程音田所藏烏雲帖」, “右坡老眞蹟, 元明諸公題跋, 洵兩絕. 庚戌元日入燕, 音田出家藏新刻本見贈, 爲余愛之深也, 乙卯張至日, 秀三識”, 『秋史 金正喜 研究(清朝文化의 東傳 研究)』(藤塚鄰 지음, 藤塚明直 엮음,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과천문화원, 2009.) p.165.에서 재인용.

음전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1789년(乾隆 54) 정음전은 李良玉에게 부탁하여 이 탁본을 鑄刻하게 하였는데, 조수삼이 우연히 1790년<sup>35)</sup>에 그를 방문하였다가 정음전에게 이 新刻本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오운첩」 신각본 정음전 본인이 소장하던 眞蹟에 의한 것이라 여겼지만, 실은 하나의 摹本에 불과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듯하다. 진본은 옹방강이 소유한 「천제오운첩」이 유일한 것이었고, 추사 역시 1810년 옹방강의 서실인 蘇齋에 들렀다가 그것이 진본임을 감정해 주었다.<sup>36)</sup>

조수삼이 을묘년(1795)에 지었다고 하는 「程晉田所藏烏雲帖跋」은 안타깝게도 문집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제1차 연행 당시였던 1790년에 정음전과 교유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제1차 연행시 부분인 『경원총집』, 『연행기정』에도 드러난다.<sup>37)</sup>

조수삼이 정음전의 서실에서 본 것은 「천제오운첩」 탁본만이 아니었다. 『聯牀小諧』에서는 그가 정음전의 서실에서 본 고검 ‘宗純’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sup>38)</sup> 또한 陶弘景의 『刀劍記』를 언급하면서 ‘중순’이라는 명검의 존재가 목록에 빠져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확인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

한편, 조수삼은 燕行을 계기로 직접 목도하거나 傳聞한 지식정보를 대외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활용한다. 그 과정에 탄생한 것이 바로 「外夷竹枝詞」와 『聯牀小諧』 등의 작품들이다. 그는 제1차 연행 이후 이미 『연

35) 1789년에 사행길에 올라, 1790년에 入燕하였다.

36) 등충린의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아카데미하우스, 1994.)에는 阮堂 自筆本에 의거한 「天際烏雲帖」題辭가 실려 있다. 추사가 방문한 이 날이 우연히 소동파의 생일이었는데, 마침 정음전이 본인의 소장본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사는 “蘇齋翁氏所藏本爲眞蹟”이라 하여, 옹방강의 진적이 유일본임을 밝혔다.

37) 趙秀三, 『經畹總集』 『燕行起程』, 「飲程晉田振甲內翰也園」二首, 이 시는 『秋齋集』과 『秋齋詩稿』에는 실려 있지 않은 제1차 연행시이다.

38) 趙秀三, 『聯牀小諧』, “晉田內翰家, 有古劍一口綠龜紋, 長三尺五寸, 背刻天祿辟邪, 各二傍題‘宗純’二字小篆, ‘建武元年三月’六字隸書也. 陶弘景刀劍記中無宗純之名, 抑遺之歟”

상소해』를 통해 이역의 문화와 인물들에 관심을 촉발시켰다. 연행체험이라는 海外見聞의 충격은 중국 이외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는데 「外夷竹枝詞」는 이를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이다. 조수삼의 「외이죽지사」는 1795년 창작된, 中華가 아닌 그야말로 ‘外夷’에 대한 기록이다. 형식은 竹枝詞의 전형적인 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竹枝詞 본연의 ‘地域 土俗鎖事’에 대한 기록이란 점에도 충실하다. 하지만, 그가 직접 이 지역들을 여행한 것은 아니며, 明代 文人이었던 新安 程百二의 『方輿勝略』<sup>39)</sup>이라는 저서를 섭렵한 후,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得意作이다. 때문에 이 작품은 일종의 ‘상상의 견문록’이라 할 수 있다. 연행을 매개로 촉발된 대외적 관심과 지식 정보의 활용이 낳은 구체적 결과물인 셈이다. 추재가 『방여승략』 전권을 열람한 후, 「正編」보다 「外夷」에 관심을 가진 사실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실제로 「외이죽지사」를 쓰면서 각국의 정치적 쟁점 혹은 역사적 평가 등은 자제하였으며, 풍습, 언어, 관련 신화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또한 사소한 것이라도 오류를 시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증보하려는 정성을 쏟아 가치 있는 문화사 자료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조수삼과 같은 서리 신분으로 6차례나 연행에 임했다는 것은 그가 역관 중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특수하다. 풍양 조씨 가문의 비호나, 그의 뛰어난 실무적 경험이 긍정적으로 조합된 경우라 하겠다.

### 3. 지식정보를 기반한 창작에 주력한 경우

연행에서 얻은 지식정보를 활용, 자신의 작품 창작과 문예적 성취에 주력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는 앞선 두 경우보다 정보를 향한 실무적 접근성에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지식 정보의 획득 → 전달 및 향유 → 정보의 가공 및 재생성에서 세 번째 단계에 공을 들인

39) 『方輿勝略』은 清代의 禁書로서, 『四庫禁燬書叢刊』에 수록되어 있다.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연행’을 통해 접한 문화 정보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또다시 전달하려 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가장 적절한 예는 璧盧齋 金進洙와 『燕京雜詠』<sup>40)</sup>이다.

金進洙(1797-1865)는 字가 稚高, 號는 蓮坡 혹은 碧蘆齋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부친인 金取禹(1757-?, 字는 器仲, 관직은 三曆官), 형 金近洙(1786-?, 字는 稚三, 관직은 修述官) 아들 金東勛(1846-?, 字는 美卿, 命課學) 등이 모두 기술직 중인이었던 중인 가문<sup>41)</sup>이지만 본인 자신은 입격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한국학중앙연구원) DB자료 金東勛 조를 참조해보면, 부친인 金進洙의 관직이 ‘寫字官’과 ‘護軍’<sup>42)</sup>으로 기재되어 있다.

金進洙의 『연경잡영』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독특한 기록방식이다. 대부분의 연행과 관련한 글쓰기는 기행시와 기행산문이 기본 형태이다. 그 중에서도 시 형식이 더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金進洙의 작품은 18, 19세기 한시의 ‘변주’ 양상을 보인다. 詩註+漢詩+詩評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조선 후기 들어 지식정보의 팽창과 유통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시’가 소통과 정보의 전달을 겸하려는 시도를 내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詩註+漢詩의 형식이다. 金進洙의 『연경잡영』은 여기에 詩評이 덧붙여지면서 그 저작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7언 절구의 竹枝詞 기본 형태를 견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自註와 동시대 사대부 문인이었던 怡觀齋 黃鍾顯<sup>43)</sup>의 평을 부기하였다. 이는 정보 전달과 문학적

40) 金進洙의 『연경잡영』에 관한 연구는 拙稿, 「19세기 中人層 知識人의 海外 體驗 一考 -벽로재 金進洙의 연행과 『연경잡영』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에서 논한 바 있다. 여기서 金進洙의 연행 시기(1832년)를 확정지었다. 후속연구로는 金현녀, 「金進洙의 『연경잡영』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가 있다.

41)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韓國學中央研究院) DB자료 참조.

42) 金進洙는 1832년 연행 당시에 副使 윤치겸의 호군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金景善의 『燕輶直指』에 기재되어 있다.

43) 黃鍾顯: 1818년생. 號는 怡觀齋.

완성도를 함께 겨냥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연경잡영』은 1832년 당시 연행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를 완성한 시기는 1857년이다. 이 작품은 애초에 1846년 冬至兼謝恩使行(正使 金賢根, 副使 朴容壽)의 書狀官으로 연행에 임한 宋柱憲(1795-?)에게 주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sup>44)</sup> 김진수의 『碧蘆集』<sup>45)</sup> 자서에서 “이 시는 연운 송주헌의 연행을 위해 쓴 작품이다.[此詩初爲宋研雲柱獻之之燕而作也]”라 하여 처음의 저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송주헌의 字는 英老, 號는 研雲이며, 김진수는 송주헌의 부친이었던 蘇山 宋祥來(1773-1843)와 교유가 확인된다.<sup>46)</sup> 그러나 末尾의 “丁巳년 이른 봄에 연과 김진수가 제하다.[丁巳早春上浣蓮坡金進洙題]”라는 구절로 보아, 이 서문이 완성된 시기는 송주헌의 연행시기였던 1846년보다 10년 이후인 1857년임을 알 수 있다. 1856년 黃鍾顯의 서문이 작성된 시기를 감안하면, 처음에 연운 송주헌에게 주려던 연행시를 오랜 시간 功力을 들여 다듬고 작품의 완성도를 完整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그가 이 작품에 공을 들인 사실은 『벽로집』의 초고 형태인 『西社漫錄』의 修正 흔적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연경잡영』에 담아낸 소재들은 異國的 風物, 勝景에서부터 창조 사회구조의 이면까지 다양하다.

a.

一朵芙蓉綰翠鬢    한 떨기 연꽃 머리엔 비취 장식 꽃고  
鶯鶯燕燕搥無顏   鶯鶯와 燕燕이 모두 무색하구나

44) 『朝鮮王朝實錄』 DB, <현종 12년 병오(1846) 10월24일> 참조.

45) 국립중앙도서관본으로, 필사본, 전집/후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金進洙의 自序가 수록되어 있으며 零本 1책이다. 이에 반해 『여향문학총서』 5권에 수록되어 있는 『벽로집』은 황중현의 서문만 있으며 자서는 실려 있지 않다.

46) 『연과시초』(『여향문학총서』 5), 「宋蘇山侍郎屏風墨竹」, “一幅風成竹 脩脩生八分 下枝爭解籜 上枝已干雲 二幅層岩隔 緣岩雲氣撥 佳人翠袖寒 穉子華簪脫 三幅新生筍 紛紛赤鯉飛 好是髯蘇戲 呼渠玉版師 四幅調毫法 來從芥子園 遠客低處見 濃意淡邊生 五幅籠烟雨 如何寫得無 瀟湘無限恨 祇是淚痕模 六幅如神助 風霜百鍊剛 傍人休剪伐 他日待鸞鳳 七幅全封雪 鱗鱗動腥龍 壺公如過此 看作葛陂筍 八幅如椽大 龍孫過母時 何須折爲笛 風韻自彈吹”

石榴裙底蹴羅襪 석류꽃 수놓은 치마 밑 비단 버선 발을 드니  
 偃月鬢邊搖寶環 초승달 모양 귀밑머리에 귀고리가 흔들리네

b.

市井家曾祿萬鍾 市井의 집 일찍이 만종의 녹을 받고  
 綺紈子弟作商農 부귀한집 자제도 상농에 종사한다  
 金輪粟散元無定 금륜왕, 속산왕 원래 정해진바 없으니  
 莫恨山苗與澗松 산묘목과 시냇가 소나무라 원망하지 마소

a는 雜戲에 등장하는 美童의 모습을 보고 묘사한 시이다. 시 본문만 보아서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여인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작자의 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의 모습을 형상한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다. 그는 自註에 “소설에서 소위 好漢이라 일컫는 자가 바로 지금의 優童이다. 천하의 모습이 어여쁜 사내아이들을 사서 가무를 가르치면 그들이 값이 크게 오르고 귀해진다. 왕공귀인들은 비로소 그들을 초청하여 하룻밤 지는데, 纏臂金이 수백금 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3, 4년이 지나 수염이 나거나 바래지면 환술을 배워 사방을 주유하니, 일생동안 贖身할 수 없게 된다. 근체시에, ‘천금으로 사랑스러움 샀으나, 생각해보면 가련한 아이로다’라 하였다.[小說所謂 好漢則 今之優童也. 買得天下美色童男 教以歌舞 聲價高貴 王公貴人 始得邀宿一夜 纏臂之債 不啻屢百金 而若過三數年 鬢髯老蒼 卽學得幻術周遊四方 一生不得贖身 近體詩 ‘千金買行眷 隨意可憐兒’]” 작자는 어린 미소년의 공연을 보면서 그 화려함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다. 즉 왕공귀인의 쾌락의 대상이 되었다가 결국 버려져 환술을 배워야만 하는 가련한 삶으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주를 참고하여 보면, 김진수의 어린 배우를 보는 시선 속에서 명·청 시대의 남색풍조의 폐단<sup>47)</sup>까지 읽어낼 수 있다. 그가 自註에서 인용한 시는 박제가의 「연경잡절」

47) 이와 관련하여서는 吳存存, 『明清社會性愛風氣』(번안제목: 『남자, 남자를 사랑하다』)(학고재, 2009.) 참조.

140수 가운데 제91수에 해당하는 시이다. 그는 시에 대한 註釋을 달면서 당대 시인이 경험한 유사한 상황을 적절히 인용하기도 한다.

b는 여러 방면에서 의미가 있다. 김진수는 청조에서 商農業에 대한 대우가 조선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인상적으로 받아들인다. 1·2구는 조선의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 3번째 구절의 金輪王이나 粟散王은 불교용어로서 대조적인 뜻을 지닌다. 말 그대로 금륜왕은 귀한 이를 상징하며, 粟散王은 보잘 것 없는 태생을 상징한다. 이에 “元無定”이라 하여 貴賤 차체가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山苗와 澗松은 左思 시<sup>48)</sup>를 인용한 것으로 청조의 신분질서에 대한 단상, 조선 내에서 중인층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에 대한 고민 등이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짚어내려 했던 것은 自註에 드러나 있다. 그는 자주에서 “…… 漢人和 清人是 예부와 병부 등을 나누어 관장한다. 예부와, 병부에서는 清人이 모두 承蔭을 하지만 한인은 承蔭이 없다. 때문에 綺紈商農의 변화가 일정치 않다.[…… 漢清分掌, 如禮部兵部, 清人皆承蔭, 漢人無承蔭, 故綺紈商農, 變易無常]” 이에 대해 황중현은 “양웅의 재주는 공자의 집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虞世家法은 도리어 바보를 낳았다. 만일 재주가 있다면 비록 칼 잡고 도축하는 천민이라 할지라도 높이 등용해야하고 만약 재주가 없다면 비록 부귀한 명문가 자손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것이 실로 아름다운 법이다.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揚雄之才, 非出孔氏, 虞世家法, 反生癡者, 如有才, 雖鼓刀賤流, 顯用, 如無才, 雖綺紈華胄, 廢棄, 實爲美法, 而豈有是理也”라 評했다.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漢人和 清人の 불평등한 대우를 비판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그가 수록했던 연경 관련한 시와 주석에 담긴 정보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다음 언급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8) 左思의 「詠史」에 “꼭 아래엔 울창하게 소나무가 서 있고, 산꼭대기엔 축 늘어진 묘목이 서 있는데, 직경 한 치에 불과한 저 묘목이, 백 척의 소나무 가지에 그늘을 지우누나[鬱鬱澗底松 離離山上苗 以彼徑寸莖 蔭此百尺條澗底]”라는 구절이 있다.

도읍과 궁실·경술·문장·藩國·조공·西山의 등불놀이에서 요속과 쇠사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눈과 귀로 접한 것들은 모두 품제와 비홍 강개함을 얻었으니 그 뜻이 심원하여 서장관이 이를 채록하고 취하여 일기로 삼기도 했다.<sup>49)</sup>

위에서 언급한 서장관은 金景善을 말한다. 그의 대표적인 연행기록으로 『연원직지』가 있는데, 이것이 선대 연행록을 두루 참조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진수의 언급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金進洙의 연행정보가 김경선의 『연원직지』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연원직지』에서는 그가 직접 견문한 사실보다 伴儻이었던 魚明羲(字는 聖申, 號는 翠董)를 보낸 후 다시 傳聞하여 기록한 경위가 곳곳에 보인다.

김진수의 경우는 역관들처럼 실제로 정치 정보를 획득하거나 추재 조수삼과 같이 두드러진 架橋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학의 형태로 재생산한 지식정보는 評者였던 황중현은 물론 필시 ‘독자층’을 겨냥한 知識產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지식정보를 2차 가공하여 재생산한다. 즉, 知人인 송주현이 연행에 임할 때 그를 위해 주고자 했던 정보를 10년의 시간을 거쳐 ‘문학작품’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분명 지식정보를 습득, 향유, 산출하는데 있어 사대부의 亞流[epigonen]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Ⅲ. 결론을 대신하여

조선 후기 연행이나 통신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외체험을 한 중인층

49) 金進洙, 『碧蘆集』 卷1 末尾 “自都邑宮室經術文章藩國朝貢西山燈戲, 以至謠俗細瑣, 苟接於耳目, 皆得以品題比興慷慨, 其旨深遠, 輸與三行人採取, 以爲日記 ……”

지식인들은 그 층이 상당히 두텁다. 지리서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중인 작자층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이들을 어느 정도 유형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한다. 본고에서는 18, 19세기 중인층 지식인들이 지식정보의 수용과 향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생성하는 주요한 층을 ‘燕行’이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시켰다. 아직까지 그들이 남긴 편린들을 통해 연행의 有無를 쫓기에도 급급한 수준임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지식정보의 향유, 산출에 기여한 중인층들을 유형별로 나누어보기는 했으나 더 精緻해야 함을 느낀다. 본고에서 다룬 비교군이 다소 한정적이고, 또한 향후의 후속 연구가 요구되기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지식의 단순한 ‘전달자’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그것이 실무적 성과 혹은, 문학적 성과에 있어서든, 아니면 이 둘에 모두 기여하려 노력한 경우이든 지식을 다루는 입장이 ‘주체자’의 면모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밝히고자 했다.

전통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규정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그 사회에서 실질적 역할을 얼마만큼 했는가와 무관하게 그저 명목적인 신분에 의해 그 지위가 정해진다. ‘중인층’이라는 신분도 그들이 조선 후기 지식 정보 시스템에 기여한 역할보다 선행한다. 이들을 이 틀 안에 가두어 둘 것인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끌어올려야 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몫이 아닐까 한다.

#### <參考 文獻>

- 姜浩溥, 『桑蓬錄』, 『燕行錄選集 補遺』 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李義鳳, 『北轅錄』, 『燕行錄選集 보유』 上,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趙秀三, 『秋齋詩稿』, 규장각 필사본.  
 ———, 『經畹叢集』, 동국대학교 소장 필사본.  
 ———, 『聯牀小譜』, 수경실 소장본.

洪大容, 『湛軒書』.

洪錫謨, 『陶厓詩文選』.

翁方綱, 『復初齋文集』.

劉喜海, 『海東金石苑』, 아세아문화사.

程百二, 『方輿勝略』, 『四庫禁毀書叢刊』.

김양수, 「조선후기 역관의 중개무역과 왜관유지비」, 『大湖 李隆助 교수 정년 기념논총』.

김영진, 「여항시인 김낙서의 『호고재집』」, 『고전과 해석』 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김현녀, 「김진수의 「연경잡영」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징』, 혜안, 2007.

藤塚鄰 지음, 朴熙永 옮김,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藤塚鄰 지음, 藤塚明直 엮음,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秋史 金正喜 研究(清朝文化의 東傳 研究)』, 과천문화원, 2009.

박희병, 『이연진 평전 -나는 골목길의 부처다』, 돌베개, 2010.

吳存存 지음, 이월영 옮김, 『남자, 남자를 사랑하다』, 학고재, 2009.

拙稿, 「추재 조수삼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 「19세기 中人層 知識人의 海外體驗 一考 -벽로재 김진수의 연행과 「연경잡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진재교,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 「18,19세기 동아시아와 지식, 정보의 메신저, 譯官」, 『한국한문학회연구』 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 「17~19세기 사행과 지식, 정보의 유통 방식 -複數의 한문학, 하나인 동아시아」, 『한문교육연구』 4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3.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편, 『19세기 조선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Abstract

*Possession and Reproduction of Knowledge by Middle Class Intellectual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 Escape from Epigones of  
Literati-Intellectuals by way of Experiences Abroad / Kim Young Jook\**

The Joseon Dynasty period knowledge information was the exclusive property of Literati-Intellectuals(士大夫). On condition of this case, the literature of Middle Class Intellectuals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Century has depreciated sometimes. That was the reason they are treated as Epigones of Literati-Intellectuals.

But now, we have to present a variety of views. For the new understanding of Middle Class Intellectuals(especially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we should take notice to their knowledge-generating process. And to do that, first of all, we must grasp the importance of their way of Experiences Abroad.

Middle Class Intellectuals combined professionalism with ability in administrative business area.

Therefore, If we want to analyze the merit of Middle Class Intellectuals effectually, we need an in-depth study about their documentation. It is a sort of back tracking.

In this way, this study will focused on the recordings they left behind.

**【Key words】** Middle Class Intellectuals, Epigonen, Experiences Abroad, knowledge information

투고일 : 5월 11일, 심사일 : 6월 9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Researcher / wenxue@hanmail.net